

## MLS 첫 3경기 연속 해트트릭... LAFC의 기막힌 '흥부 듀오'

손흥민 MLS 진출 후 6골 3도움... 부앙가 득점 공동 선두  
 '부앙가→손흥민→부앙가'... 첫 3경기 연속 해트트릭  
 최근 3경기에서 12골 폭발한 LAFC 최전방 공격 듀오

손흥민의 소속팀인 미국 프로축구 메이저 리그 사커(MLS) 로스앤젤레스FC(LAFC)에 기막힌 '흥부 듀오'가 떴다.

LAFC는 22일(한국 시간) 미국 LA의 BMO 스타디움에서 열린 레알 솔트레이크와의 2025 MLS 정규리그 홈 경기에서 4-1 역전승을 거두고 3연승을 달렸다.

전반 12분 선제골을 내준 LAFC는 손흥민의 3경기 연속골과 데니스 부앙가의 해트트릭을 앞세워 승부를 뒤집었다.

이날 경기 전 올 시즌 MLS컵 플레이오프(PO) 진출을 확정한 LAFC는 2022년 이후 3년 만의 정상 탈환을 향해 순항했다.

신바람 행진의 중심에는 최근 3연승 동안 12골을 합작한 최전방 공격 듀오 손흥민과 데니스 부앙가가 있다.

손흥민은 3경기 연속골로 5골을 책임졌고, 부앙가 역시 3경기 동안 7골을 폭발했다.

지난 14일 부앙가가 새너제이 어스퀘이크스를 상대로 해트트릭을 달성하자, 18일 손흥민이 솔트레이크전에서 해트트릭을 뽑아냈다.

또 이날 부앙가가 또다시 솔트레이크와 리턴매치에서 해트트릭에 성공했다.

MLS 출범 이후 3경기 연속 해트트릭을 달성한 팀은 LAFC가 유일하다. 그걸 이른바 '흥부 듀오'로 불리는 손흥민과 부앙가가 합작한 것이다.

지난달 토트넘 홋스퍼(잉글랜드)를 떠나 LAFC에서 새로운 도전에 나선 손흥민은 팀에 빠르게 녹아들었다.

이날 1골 2도움을 포함해 LAFC 입단 이후 7경기에서 6골 3도움을 쌓았다.

지난달 10일 시카고 파이어FC전과 지난 1일 샌디에이고FC전 2경기만 공격 포인트가 없었는데, 시카고전은 페널티킥을 유도했고, 샌디에이고전은 골대 불운에 막혔다.

그만큼 부진한 경기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매 경기 인상적인 활약을 펼쳤다. 손흥민의 합류로 가장 빛을 본 선수는 단짝 부앙가다.

사실상 혼자서 LAFC의 득점을 책임졌던 부앙가는 손흥민이 가세하면서 더 많은 공간과 득점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

4경기 연속골(8골)을 기록 중인 부앙가는 이날 20, 21, 22호골에 성공하며 3시즌 연속 MLS에서 20골 고지를 넘었다.

2023년과 2024년에는 20골씩을 넣었고, 올해는 MLS 진출 후 최다인 22골을 생산했다.

'축구의 신' 리오넬 메시(인터 마이애미)와 득점 공동 선두에 오른 부앙가가 지금 페이스를 유지하면, 30골도 충분히 가능할 거란 전망도 나온다.

LAFC의 스티브 체룬돌로 감독은 "두 공격수가 지금처럼 다득점하면 팀 전체에 힘이 생긴다"며 "손흥민과 부앙가처럼 득점하면 수비수들은 100분 이상도 거뜰히 뉴 수 있다"고 칭찬했다.

손흥민과 부앙가도 서로의 호흡에 만족감을 나타냈다.

손흥민은 "부앙가가 좋아하는 플레이를



미국 프로축구 메이저 리그 사커(MLS) 로스앤젤레스FC(LAFC) 손흥민과 데니스 부앙가.

빨리 알려고 경기장에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는. 그러다 보니 시너지 효과가 더 좋은 것 같다"고 말했다.

부앙가도 "손흥민과의 케미스트리는 정

말 자연스럽다. 경기장에서 서로의 위치를 찾는 게 쉬워 만큼 케미스트리는 정말 특별하다"고 강조했다.

뉴스



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22일 도청 왕인실에서 열린 'LPGA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 성공개최 다짐대회 행사에서 참석자들과 성공개최를 다짐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 LPGA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 성공개최 다짐

지자체, 외식·숙박·관광업, 스포츠계까지 한마음으로 준비  
 김영록 지사 "전남 매력 세계에 보여줄 기회... 도민 협력"

전라남도는 22일 도청에서 김영록 전남도지사, 서남권 6개 시군 외식·숙박·관광업계 대표, 합평골프고 학생, 체육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LPGA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 성공개최를 위한 다짐대회를 열었다.

이날 전남 서남권 외식업·숙박업 대표들은 결의문을 낭독하며 "대회를 찾는 분들이 감동을 안고 돌아가실 수 있도록 친절과 미소로 환대를 다시 찾고 싶은 전남을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PGA 투어 통산 8회 우승에 빛나는 전남 출신 프로골퍼 최경주 선수는 영상을 통해 "도민의 응원 덕분에 세계 무대에서도 흔들림없이 도전할 수 있었다"며 "저의 고향, 아름다운 전남에서 국내 유일 LPGA 정규투어가 개최됨을 축하드린다"며 축하 인사를 전했다.

김영록 지사는 "LPGA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은 전남의 매력을 세계에 보여줄 절호의 기회"라며 "전남의 맛과 멋, 따뜻한 도민의 정을 전해 세계인이 찾는 글로벌 전남이 되도록 모든 분이 힘을 모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세계 정상급 여성 골프선수 78명(국내선수 15명 중 전남 출신 6명)이 참가하는 2025 LPGA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은 10월 16일부터 19일까지 4일간 해남 파인비치 골프링크스에서 개최된다.

전남도는 대회가 성공적으로 치러지도록 준비상황을 꼼꼼히 점검하고, 세심한 지원을 통해 전남의 품격과 매력을 세계에 알릴 계획이다. /김명수 기자

동·호지정 계약 중

3,214세대 거대한 움직임이 시작된다.

## 운암자이포레나 퍼스티체

X1 | FORENA

방문예약시  
스타벅스 기프트카드 증정!

※ 상기 CG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NO.1 BRAND	총 3,214세대 대단지의 품격	원스톱 도보 학세권	일상을 높인 특화설계	다채로운 커뮤니티	쾌적한 에코라이프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자이와 포레나의 합작	복구를 대표할 대규모 브랜드 타운	단지내 어린이집 및 단지 앞 경양초, 운암중 등 안심 학세권	채광과 조망을 고려한 남향 위주 단지 배치, 조방형 유리난간 적용, 세대 전용 창고 등	교보문고 북 큐레이션, 오픈 카페스테이션 전 타석 GDR골프연습장 및 스크린 골프 등	약5.5만㎡ 규모의 단지 조경과 운암산, 중외곡원 등 일링 자연환경

발코니 무상

중도금 무이자

일부 품목 무상

+

파격적 혜택

총 3,214세대 중 일반분양 1,192세대 [전용 59㎡ / 75㎡ / 84㎡]

062) 607-8338

시흥 운암 3단지 재건축정비사업조합 | 시흥 GS건설 | (주)한화/건설 | HDC현대산업개발

## 전국 마라토너들, 영암 국제자동차경주장 서킷 달린다

영암군, 10/9일까지 '영암모터피아 F1 전국 마라톤대회' 참가자 모집

영암군(군수 우승희)이 10/9일까지 '영암모터피아 F1 전국 마라톤대회' 참가자 4,000명을 선착순으로 접수받는다. 10/19일 영암 국제자동차경주장에서 개최되는 이 대회는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체육진흥공단, 전라남도의 지원을 받아 열린다.

대회에 참가한 전국 마라톤 동호인들은 국제자동차경주장 서킷을 달리는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다. 대회 종목은 △하프 △10km △5.615km 건강달리기 한바퀴 코스로 구성돼 참가자들은 자신의 수준에 맞게 선택할 수 있다.

특히, 영암군민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영암군 초·중·고등학생과 군인은 무료로 접수 받는다. 최다 참가 단체에게는 특별상을 시상하고, 하프와 10km 참가자들에게는 영암사랑상품권 제공 등 다양한 혜택과 기념품이 준비돼 있다.

한제진 영암군 기업지원과장은 "국제자동차경주장을 달리는 이색 마라톤 대회에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 바란다. 대회 참여와 함께 아름다운 영암의 가을과 맛있는 음식도 즐기길 바란다"고 전했다. 참가 신청은 영암 모터피아 F1 마라톤 대회 공식 홈페이지 (motorpiarace.co.kr)에서 할 수 있다.

영암/김희선 기자

## 김하성, 10경기 연속 안타 '펼 펼'... 수비에서도 '슈퍼캐치'

메이저 리그(MLB) 애틀랜타 브레이브스 이적 후 쾌조의 타격감을 자랑하는 김하성이 공수에서 맹활약하며 팀의 9연승에 앞장섰다.

김하성은 23일(한국 시간)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의 트루이스트 파크에서 벌어진 2025 MLB 워싱턴 내셔널스와의 홈 경기에서 5번 타자 유격수로 선발 출전해 4타수 1안타 1볼넷 2득점을 기록했다.

지난 14일 휴스턴 애스트로스전을 시작으로 이날까지 10경기 연속 안타 행진을 벌인 김하성은 시즌 타율 0.257(152타수 39안타)을 유지했다.

애틀랜타 이적 후에는 뜨거운 방망이를 과시 중이다. 팀을 옮긴 후 19경기에서 타율 0.309(68타수 21안타)를 작성했다.

전날 디트로이트 타이거스와 원정 경기에서 시즌 5호 홈런을 날린 김하성은 이날 첫 타석부터 안타를 때려냈다.

1-로 맞선 2회말 선두타자로 타석에 들어선 김하성은 워싱턴 좌완 투수 매켄지 고어를 상대로 좌전 안타를 날렸다.

곧바로 파울로 권어내며 9구까지 가는 승부를 벌인 김하성은 가운데 낮은 체인지업을 노려쳤다. 시속 106.4마일(약 171.2km)의 속도로 날아간 타구는 좌익수

앞에 떨어지는 깨끗한 안타로 연결됐다. 후속타자 드레이크 블드윈의 볼넷으로 2루까지 나아간 김하성은 마르셀 오수나의 병살타 때 3루로 진루했고, 마이클 해리스 2세의 우월 2루타 때 홈을 밟았다.

김하성은 3회말 무사 1, 2루 찬스에서 바뀐 투수 잭슨 러틀리지를 상대로 풀 카운트 승부 끝에 볼넷을 골랐다.

주심이 볼넷을 선언한 후 미겔 카이로 워싱턴 감독대행이 체크스윙에 대해 항의를 하다가 퇴장당했다.

블드윈의 우전 안타로 2루로 진루한 김하성은 오수나의 좌전 안타 때 득점을 올렸다. 김하성의 시즌 19번째 득점이다. 4회말 3루수 팻볼로 물러난 김하성은 5회말 상대 호수비에 막혀 아쉬움을 삼켰다.

김하성은 5회말 1사 1루에서 워싱턴 우완 투수 소린 라오의 초구 슬라이더를 노려쳐 시속 106.3마일(약 171.1km)의 강한 타구를 만들어냈다.

김하성의 활약 속에 애틀랜타는 워싱턴을 11-5로 눌렀다.

이미 가을야구 진출 가능성이 사라진 애틀랜타는 9연승을 질주하며 시즌 74승(83패)째를 수확했다. 내셔널리그 동부지구 최하위 워싱턴의 성적은 64승 93패가 됐다. /뉴스